

한국인 영어학습자의 초점 습득에 미치는 모국어 영향: 인지와 발화 관계 중심으로*

정 윤 희
(전남대학교)

Chung, Yun Hee. "L1 Influence on the acquisition of English focus marking by Korean EFL learners based on the perception and production test." *Studies in English Language & Literature* 46.3 (2020): 411-431. This paper examines the influence of Korean speakers' native language on the acquisition of English prosodic focus marking in the three distinctive focus contexts: subject narrow focus, verb phrase broad focus, and sentence broad focus. In this study, 20 Korean learners of English and 5 English native speakers participated in two experiments: 1) a perception experiment, in which they were asked whether the answers in the recorded question-answer pairs had context-appropriate prosody 2) a production experiment, in which they were recorded reading the answers to questions. Based on the result of the two experiments, this paper finds out that Korean participants rely on focus marking of Korean in realizing that of English both in perception and production. The perception test revealed that Korean participants were less successful at prosodically marking broad focus than narrow focus in both languages. In addition, in the production test, Korean participants had greater preference for accenting the subject regardless of the different focus in the sentences. These findings indicate that both L1 transfer and features of the L2 affect language learners' acquisition of prosodic focus marking. (Chonnam National University)

Key Words: Prosodic focus marking, L1 influence, Perception, Production, Accent

* 이 논문 또는 저서는 2017년 대한민국 교육부와 한국연구재단의 지원을 받아 수행된 연구임 (NRF-2017S1A5B5A07062600)

I. 서 론

영어의 초점 습득(Focus marking acquisition)에 있어 한국인 영어 학습자가 목표 언어의 초점 구조를 이해하고 운율적으로 실현하는 과정은 학습자에게 쉽지 않은 과제이다. Halliday (1967)가 담화 내에서 이전 담화 맥락에서 파악할 수 없는 정보를 담은 담화 요소를 '초점(focus)'라 처음 정의한 이후로 초점에 대해 많은 연구가 이루어져왔다. 초점(Focus)은 화자가 발화하는 문장 내의 특정한 단어나 구를 운율적으로 돋들리게 발화함으로써 문장 내 새로운 정보나 다른 의미 강조가 필요한 정보를 전달한다. 한국인 영어 학습자가 영어의 초점을 운율적으로 적절하게 실현하기 위해서는 영어의 초점 정보구조단계에서 운율체계가 통사적, 화용론, 의미적 체계와 어떻게 상호작용하는지, 음향음성적 단계에서는 초점어의 운율구조를 어떠한 음향적 요소를 사용하여 초점을 실현할 것인지를 습득해야한다(Baker, 2010).

대부분의 한국인 영어학습자들은 영어를 외국어로서 학습하며, 또한 모국어 습득이 완전히 끝난 후 영어를 학습하는 경우가 대다수이므로, 모국어가 영어 학습에 많은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다. 본 연구는 한국인 영어학습자의 영어 운율적 초점 습득에 있어, 모국어의 어떠한 영역이 영어의 초점 발화의 액센트 실현에 영향을 미치는지를 밝히기 위해 실험연구를 실행하였다. 이를 밝히기 위해 다음과 같은 연구과제를 제시한다. 첫째, 한국인 영어 학습자가 모국어와 영어의 운율적 초점 실현을 각각 어떻게 인지하며 또한 음성적으로 어떻게 실현하는지를 살핀다. 인지실험에서는 한국인 실험참가자가 세 가지 다른 논항구조의 실험자료에 대해 각각 다른 담화 상황을 제시하는 초점의 위치와 의미와의 관계를 어떻게 인지하는지를 분석한다. 둘째, 인지실험에서 사용된 같은 실험자료를 사용하여, 한국인 영어 학습자가 각각 다른 담화 상황의 초점을 운율적으로 어떻게 실현하는지를 알아본다. 셋째, 인지실험과 발화실험을 통해 인지와 발화 간에 어떠한 상관관계가 있는 지를 분석한다.

본 연구의 결과를 통해 한국인 영어 학습자의 초점 구현 습득과정에 모국어의 초점 인지와 발화가 어떠한 영향을 끼치는지 고찰하고, 이를 통해 한국인 영어 학습자가 영어 초점의 음성적 실현과 의미와의 관계를 이해하고 발화할 수 있도록

록 영어 발음 교육에 활용하고자 한다.

II. 문헌연구

1980년대 이전까지는 영어의 초점에 대한 연구는 통사적, 구조적, 의미적 측면에 대한 연구가 주로 이루어졌다(Halliday 1967, Chomsky & Halle 1968). Chomsky and Halle (1968)는 생성문법적인 관점에서 일반적인 중립발화 문장의 강세규칙을 설명하고 중립발화 문장과 달리 문장의 특정 요소를 초점으로 부각시키는 경우에 초점이 되는 성분을 보다 강조하며 통사적 규칙에 따라 영어의 초점 강세가 결정된다고 주장하였다. 그러나 실제 영어억양에서는 이들이 주장한 것과 같은 일정한 강세패턴을 보이지 않거나 원어민 청자는 이를 상당히 유표적으로 인지하는 것으로 이후 논의되었다(Schmerling 1976, Gussenhoven, 1983, 1999, 2002). 생성문법학자들과 달리 Bolinger (1972, 1989)와 Cruttenden (1998)의 연구에서 초점과 영어억양의 관계를 설명하고자 하는 시도가 시작되었다. 이들의 연구에 따르면, 담화의 화용적 구조와 초점에 대한 운율적 실현과의 밀접한 관계를 설명하고자 하였다.

지금까지의 영어 원어민과 한국인 학습자들의 초점 습득에 대한 대다수의 기존 연구는 한국인의 영어 피치액센트의 정확한 구현 여부나 피치 구현 양상의 빈도에 대해 원어민과 한국인의 발화를 비교 분석하는 것에 집중되어 왔다(Yi 2011, Kim 2004, Kim, et al. 2000, Lee 2004, Lee, 2005). 이러한 기존의 연구는 한국인 학습자의 초점 실현에 대한 심도깊은 음향음성적 분석 결과를 제시하였으나 동시에 상이한 연구 결과 또한 제시되었다. 예를 들어 Yi(2011)의 연구에 따르면 영어 원어민과 한국인 영어 학습자 모두 초점어에 피치 상승이 나타나고 액센트를 받은 음절의 모음의 길이 역시 모두 증가하였으나, 한국인 영어 학습자의 이와 같은 운율적 실현은 영어 원어민에 비교하여 그 정도가 상당히 피치 상승 폭과 길이 면에서 모두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 다른 연구(Kim, 2004)에 따르면, 한국인 화자는 문맥과 상관없이 모든 내용어에 액센트를 부여하고 특히 액센트 해지는 거의 구사하지 못하는 결과를 보였으며 이는 한국인 화자에게는

초점과 정보구조가 억양실현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인식이 아직 부족하다고 언급하고 있다. 이 연구(Kim, 2004)는 더 나아가 초점 구현 양상은 문맥에 포함된 정보구조나 의미적 측면에 의해 큰 영향을 받고 있다는 사실을 간과할 수 없고, 초점의 음성적 실현 양상의 분석 결과를 통사적, 의미적, 문맥적, 화용적 측면과 연관시켜 보는 것이 더 바람직하다고 시사하고 있다.

이러한 상이한 연구결과로 인해, 한국인 학습자의 영어 초점 발화에 있어 일관적이고 실증적인 결론을 내리기 어렵고, 또한 모국어의 어떤 특성이 학습자의 영어 초점 발화에 영향을 미치는지에 대한 연구는 미비한 것으로 보인다. 모국어 가 L2 습득에 많은 영향을 미친다는 증거는 다른 모국어 사용자가 영어를 L2로 습득하는 학습자의 초점 실현 연구에서도 제시됐다. 예를 들어 L1에서의 정보구조의 인지적 패턴이 L2의 정보구조를 파악하는데 사용된다는 증거가 Akker and Cutler (2003)의 연구에서 제시된 바 있다. 이 연구에 따르면 언어 간 초점을 실현하는 방식이 다름에도 불구하고 L1에서 사용하는 초점표시 전략이 L2에서 그대로 사용되는 경우가 관찰됐으며 이러한 L2에 대한 L1 전이는 효과적인 의미 전달을 어렵게 하고 있는 것으로 논의됐다. 본 연구는 한국어와 영어에서의 문장 단위 초점표시가 각각 어떻게 실현되는지 살펴보고, 모국어의 초점 실현 방식이 한국인 영어학습자의 영어 초점 실현에 미치는 영향을 고찰함을 목표로 한다.

위에서 언급된 한국인 영어학습자의 초점 습득에 관해 이루어진 많은 연구는 대개 한국인들이 영어 초점 혹은 돋들림을 실현하기 위해 어떠한 음향음성적인 자질을 사용하는지 살펴보는 데 많은 중점을 두고 있다. 그러나 통사적, 의미적으로 각기 다른 종류의 영어 문장에 있어 한국인 영어학습자가 어떤 특정 단어에 초점이 있다고 인지하는지, 더 나아가 이에 대한 학습자의 인지가 음향음성적인 발현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에 대한 연구는 극히 제한적으로 이루어져왔다.

최근 Kang, et al(2012)은 한국인 학습자의 영어권 국가 체류기간이 영어 초점 습득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음향음성적 자질을 측정하여 분석하였다. 이들의 연구에서 흥미로운 결과로서, 체류기간에 상관없이 모든 실험참여자들이 능격 문장(ergative sentences)에서 음조 정점(pitch-peak)을 발현하는데 있어 원어 민과 매우 다르게 발현하는 것으로 나타나, 저자들은 이를 L2 초점 습득이 문장의 의미적 종류(semantic types)에 따라 초점 습득과 많은 연관이 있음을 시사

했다. 그러나 이 연구 또한 이러한 결과에 대해 초점 습득이 통사적, 의미적으로 각기 다른 종류의 영어 문장에 있어 한국인 영어학습자가 어떤 특정 단어에 초점이 있다고 인지하는지, 혹은 어떠한 오류를 낳는지에 대해 더 이상의 분석은 제시하지 않았다.

III. 연구방법

본 연구의 목적은 한국인 영어학습자의 영어 운율적 초점 습득에 있어, 모국어의 어떠한 영역(linguistic parameters)이 영어의 초점 발화의 피치액센트 실현에 영향을 미치는지를 살피고, 또한 한국인 학습자가 영어의 초점의 위치와 그 의미관계를 이해하며 발화하는데 있어 그 상관관계를 분석하는데 있다. 이를 위해 본 연구는 한국어 문장 실험자료에 대한 초점 인지 실험, 영어 문장 실험자료에 대한 초점 인지 실험과 영어 문장 실험자료에 대한 발화(Production) 실험을 각각 실행하였다.

3.1 실험 참여자

본 실험 연구에는 20-26세 사이의 20명(남학생 10명, 여학생 10명)의 한국인 영어 학습자 참여하였다. 한국인 피실험자는 국내 4년제 대학에 등록한 학생들로 모두 TOEIC Speaking Test에서 4-5 단계(스케일 점수 80-120)에 해당하며 영어말하기 유창성 면에서 중급 수준으로 평가되어진다. 참여자의 영어유창성 정도의 차이에 대해 단일표본 T 검정을 실시한 결과, 95% 신뢰구간에 평균 -54.899 ($t=1.899$, $p=.082$, $df=19$)로 나타나 귀무가설은 기각되지 않았다.

표 1. 한국인 피실험자의 영어 유창성 수준에 대한 기술통계

	N	Mean	Std. Deviation	Std. Error Mean
Score	20	103.77	7.155	1.984

한국인 피실험자의 실험 결과를 원어민과 대조 분석하기 위해, 2명의 캐나다인과 3명의 미국인, 총 5명의 원어민이 실험에 참여하였다, 이들은 모두 한국인 학생들이 등록한 대학의 영어 강사로 재직 중이다.

3.2 실험자료

한국어와 영어 초점 위치 인지와 발화 실험을 위해 24개의 주어-동사-목적어 문장이 한국어와 영어로 각기 구성되었다. 각 문장은 주어 좁은 초점(Subject narrow focus: SuNF), 동사구 넓은 초점(Verb phrase broad focus: VPBF), 문장 넓은 초점(Sentence broad focus: SBF)을 담고 있는 세 가지 다른 문맥(contexts)의 문장을 포함한다. 한국어와 영어의 SuNF 문맥, VPBF 문맥, SBF 문맥의 실험자료 예시는 다음과 같다.

(1) 한국어 문장 예시

- ㄱ. 누가 컵을 깬나요? (SuNF)
김이 컵을 깬어요.
- ㄴ. 김이 무엇을 했나요? (VPBF)
김이 컵을 깬어요.
- ㄷ. 무슨 일이 있었나요? (SBF)
김이 컵을 깬어요.

(2) 영어 문장 예시

- ㄱ. Who broke a cup? (SuNF)
Kim broke a cup.
- ㄴ. What did Kim do? (VPBF)
Kim broke a cup.
- ㄷ. What happened? (SBF)
Kim broke a cup.

영어 실험 자료 문장 중 좁은 초점 문장(SuNF)의 경우 주어가 초점어로서 주어에만 피치 액센트(Pitch accent)가 실현되며, 넓은 초점 문장(VPBF, SBF)의 경우 목적어가 초점어로서 목적어에 마지막 피치 액센트(Final pitch accent)가

실현된다. 인지실험에서는 세 가지 다른 문맥이 제시된 24개의 문장이 사용되었는데 한 원어민 실험 참여자가 세 가지 다른 문맥의 답변을 유도하는 질문과 각 질문마다 두 가지 다른 문맥의 답변을 녹음하였다. 하나의 답변 문장에는 올바른 피치 액센트가 실현되었으며, 다른 하나의 답변 문장은 잘못된 피치 액센트가 실현되었다. 한국인 피실험자는 질문과 답변을 듣고 초점어의 위치가 질문이 의도하는 답을 하고 있는지(matched/mismatched)를 판단하였다. 한국어 실험 자료의 경우 국어 음운론을 전공한 한국어 강사의 도움을 받아 영어 실험 자료와 마찬가지로의 방식으로 실험자료를 녹음하였다.

발화 실험에서는 세 가지 다른 문맥의 24개의 녹음된 질문과 초점어가 표시되지 않은 텍스트 형태의 답변 문장이 실험자료로 사용되었다. 한국인 피실험자는 각 질문을 듣고 주어진 답변문장에 대해 본인이 생각하는 초점어에 강세를 두어 발화하도록 유도하였다. 발화 실험은 영어 실험 자료에만 이루어졌는데, 본 연구는 한국인 피실험자의 한국어와 영어의 실험자료에 구현된 초점에 대한 인지 결과를 대조 분석하고 이러한 인지가 영어의 초점의 운율 실현과 어떠한 상관관계가 있는지를 분석하기 위함이다.

3.3 인지 실험 (Perception test)

실험 자료에서 제시된 논항구조가 다른 세 가지 다른 담화 문장들에 대해, 피실험자가 각각 다른 의미적 타입의 문장에서 초점 위치를 어떻게 인지하는지 분석하였다. 인지실험과 발화실험에 앞서 한국인 피실험자는 초점에 대한 간략한 설명을 들었다. 이후 한국인 피실험자는 영어와 한국어 실험 자료 문장의 다른 담화 상황을 묻는 질문을 듣고 답변 문장의 초점 위치가 질문의 답변으로서 일치 혹은 불일치하는지를 판단하여 일치(Matched) 혹은 불일치(Mismatched) 란에 표시를 하는 방식으로 진행됐다. 한국인 학습자의 영어 초점 위치에 대한 인지 결과를 원어민의 인지와 비교 분석하기 위해, 원어민 피실험자를 대상으로 한국인 피실험자에게 사용된 같은 영어 실험자료와 같은 방식으로 실험을 실행하였다.

3.4 발화실험(Production test)

한국인 피실험자는 인지실험에서와 같이 녹음된 질문을 듣고 이에 대한 대답의 지문을 자연스러운 상황에서 발화하듯 대답하였다. 피실험자가 소리내어 읽을 대답문에는 초점어가 표시되어 있지 않고 피실험자가 초점어라 생각하는 단어에 액센트를 주도록 유도하였다. 피실험자의 발화는 Sony PCM-D50 녹음기(16 bit/44.1 KHz sampling rate)를 사용하여 녹음한 후 Praat (Boersman and Weeknink, 2014)에서 음향 분석을 하였다. 한국인 학습자의 영어 초점 발화의 운율적 실현을 원어민의 발화와 대조 분석하기 위해, 원어민 피실험자를 대상으로 한국인 발화실험에 사용된 같은 영어 실험자료를 발화하게 하여 같은 방식으로 녹음 분석을 하였다. 음향 분석에 있어서 피실험자가 각 문장의 어떤 문장 성분에 초점 강세를 실현하고 있는지를 측정하기 위해, 한국인 피실험자와 원어민이 발화한 문장의 평균 Fundamental Frequency(F0)값과 초점어에 실현된 F0 값의 차이(F0 range)를 측정하고 표준화(normalization)된 값을 대조 분석하였다.

3.5 통계분석

두 개의 인지실험과 발화실험은 혼합 로지스틱 회귀모형(mixed-logistic regression models, Jaeger 2008)을 사용하여 R 통계그램(version 2.9.1)에서 분석했다. 로지스틱 회귀모형은 전통적인 ANOVAs를 사용하여 비율 데이터를 분석할 때 나타날 수 있는 비논리성을 피하기 위해 주로 사용되는 통계분석 방법으로, 초점 인지실험에서 언어 그룹간, 맥락(contexts), 일치성(Matched/mismatched)에 있어 유의미한 차이를 분석할 수 있다.

인지실험에 사용된 실험항목은 언어그룹(한국어, 영어), 일치성(matched, mismatched)에 대한 정확도(Correct/incorrect), 담화 맥락(SuNF, VPBF, SBF)의 세 가지 변수가 실험항목으로 사용됐다. 언어그룹 변수에서는 영어 그룹을 기준치(Baseline)로 고정하여 한국어 그룹과 대조하였다. 일치성 변수에 대해서는 일치한 항목을 기준치로 고정하였으며, 담화 맥락 변수의 경우 SBF와 VPBF를 각각 다른 기준치로 회귀모형 분석을 실행했다.

발화실험의 F0 값 차이(F0 range) 회귀분석에서는, 각 문장의 초점 위치의 단어(주어, 목적어, 동사)의 F0 값을 종속변수로, 각 문장의 평균 F0 값을 문장 통제변수로 정하였다. 문장의 평균 F0 값과 각 초점어의 F0 값의 차이(F0 range), 담화 맥락(SuNF, VPBF, SBF), 언어그룹(한국어, 영어)을 고정변수로 회귀분석을 실행했다.

IV. 결과 분석

4.1 초점 인지 검사

한국인 피실험자를 대상으로 한국어와 영어의 세 가지 담화별 문장의 초점 인지에 대한 실험 결과를 언어그룹(Korean, English), 일치성(matched, mismatched), 담화(SuNF, VPBF, SBF)를 고정변수로 회귀분석을 하였다. 이 분석에서 언어그룹은 다른 언어 참가자 그룹이 아니라 한국인 피실험자를 대상으로 한 인지실험에 사용된 한국어 문장 자료와 영어 문장 자료를 의미한다. 한국어 문장 자료를 기준으로 영어 문장 자료에 대한 인지 결과와 대조하여 분석하였으며, 일치성 변수의 경우 일치성(matched)를 기준으로 정하였다. 또한 SBF와 VPBF를 각각 기준으로 두 번의 회귀분석을 실행하였다.

두 회귀분석 결과, 한국인 피실험자의 한국어 문장과 영어 문장 초점 인지 결과가 유의미한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다. 이는 한국인 피실험자의 한국어 문장과 영어 문장의 초점 위치를 유사하게 인지하고 있음을 의미한다. 또한 이 회귀분석 결과는 일치성 여부와 모든 담화 맥락 사이에 유의미한 상호작용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일치한 항목에 관하여, 한국인 피실험자는 VPBF와 SBF와 달리 SuNF의 일치성 여부에 더 정확성을 보이고 있으며, 불일치한 항목에 관하여서는 SuNF와 VPBF의 경우 SBF 보다 더 정확성을 보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2. 한국인 피실험자의 한국어 문장 일치성을 기준으로 한국어문장과 영어 문장 인지 대조
모수값 분석 결과

	Estimate	Std. Error	z-value	p
SBF: Baseline				
Intecept	0.35246	0.63741	0.542	0.58021
English Sentence	-0.00454	0.20495	-0.254	0.89147
Mismatched (for SBF)	-1.34140	0.194512	-6.914	<0.001
SuNF (Matched)	-0.04512	0.21457	-0.240	0.82476
VPBF (Matched)	-0.04712	0.32454	-0.289	0.79854
SuNF (Mismatched)	0.14524	0.24751	0.3214	0.83741
VPBF (Mismatched)	0.83541	0.29485	2.873	<0.005
VPBF: Baseline				
Intecept	0.300451	0.65847	0.491	0.63457
English Sentence	0.04954	0.20045	0.234	0.81084
Mismatched (for VPBF)	-0.50412	0.20245	-2.547	<0.05
SuNF (Matched)	0.04517	0.24165	0.241	0.81794
SBF (Matched)	1.71452	0.35214	5.239	<0.001
SBF (Mismatched)	-0.83576	0.28456	-2.788	<0.005
SuNF (Mismatched)	0.12457	0.37749	0.2456	0.76145

이 인지실험의 결과분석을 통해 두 가지 흥미로운 결과가 보였다. 첫째, 한국인 피실험자는 한국어 문장과 영어 문장의 초점의 위치와 의미와의 관계를 대체적으로 정확히 인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둘째, 한국인 피실험자는 SuNF의 좁은 초점은 상당히 정확히 인지하나, VPBF와 SBF와 같은 넓은 초점은 상대적으로 부정확하게 인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다음은 영어 원어민과 한국인 피실험자의 영어 문장의 담화별 초점 위치에 대한 인지를 비교 분석하기 위해 한국인 피실험자의 영어 문장의 초점 위치 인지와 영어 원어민 실험 참가자의 초점 인지에 대한 회귀분석을 실행했다. 이번 분석에서는 한국어 문장의 초점 인지 검사와 마찬가지로 언어그룹(Korean, English), 일치성(matched, mismatched), 담화(SuNF, VPBF, SBF)를 고정변수로 정하였다. 여기에서 언어그룹은 한국인 피실험자와 영어 원어민 실험 참가자를 의미한다. 원어민 피실험자 그룹을 기준으로 한국인 피실험자의 영어 문장 자료에 대한 인지 결과와 대조하여 분석하였으며, 일치성 변수의 경우 일치성(matched)을 기준으로 정하였다. 또한 SBF와 VPBF를 각각 기준으로 두 번의 회귀분석을 실행

하였다(표 3).

표 3. 한국인 피실험자와 영어 원어민의 영어 문장 초점 인지 대조 분석 한 모수값 분석 결과

	Estimate	Std. Error	z-value	p
SBF: Baseline				
Intecept	4.57842	0.32757	13.879	<0.001
Mismatched for SBF	-1.40794	0.19723	-7.621	<0.001
Korean	-2.19581	0.38786	-5.697	<0.001
SuNF (Matched)	0.04905	0.20484	-2.248	0.81075
VPNF (Matched)	1.73323	0.35425	5.327	<0.001
SuNF (Mismatched)	-2.00312	0.35671	-5.544	<0.001
VPBF (Mismatched)	0.85512	0.27246	3.124	<0.005
VPBF: Baseline				
Intecept	4.52457	0.32174	13.876	<0.001
Mismatched for VPBF	-0.55419	0.19327	13.872	<0.001
Korean	-2.18572	0.37981	-5.745	<0.001
SBF (Matched)	1.78234	0.32438	5.504	<0.001
SuNF(Matched)	0.04941	0.21624	0.237	0.81401
SBF (Mismatched)	-2.85657	0.36947	-7.678	<0.001
SuNF (Mismatched)	-0.87550	0.27284	-3.132	<0.005

영어 원어민 그룹과 한국인 피실험자의 초점 인지 회귀분석 결과, 영어 원어민 그룹과 한국인 피실험자는 유의미하게 다른 인지 결과를 보였다. 영어 원어민 실험 참가자는 한국인 피실험자보다 초점 위치와 의미와의 일치성 면에서 상당히 높은 정확성을 보였으나, 한국인 피실험자는 그렇지 못함을 보이고 있다. 주목할 부분은 한국인 피실험자는 일치 혹은 불일치 항목에서 VPBF와 SBF의 경우 원어민과 유의미하게 다른 인지 결과를 보였으나, SuNF의 경우 원어민과 유의미하게 유사한 인지 결과를 보였다. 이는 원어민 실험 참가자는 좁은 초점과 넓은 초점과 의미와의 관계를 상당히 정확히 파악하는 반면, 한국인 피실험자는 한국어 문장과 영어 문장 모두 주어 좁은 초점과 의미와의 관계만을 대체로 정확히 인지하고 넓은 초점과 의미와의 관계는 부정확하게 이해하고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그림 1). 또한 원어민의 경우 일치한 항목과 불일치한 항목 모두 유사한 정확도를 보였으나, 한국인 피실험자의 경우 불일치한 항목의 경우 일치한 항목

보다 정확성이 더 떨어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한국인 피실험자의 경우 불일치한 항목에 있어서 초점 위치와 의미를 정확성을 파악하는데 더 어려움을 겪는 것으로 해석될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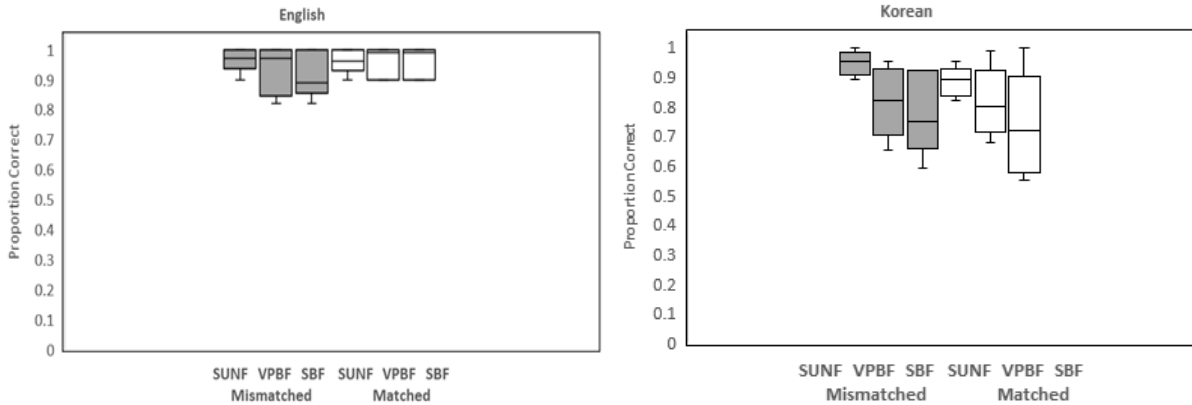


그림 1. 각 언어그룹(Korean, English)의 각 문맥 별 초점 문장의 초점 위치와 의미간의 일치성 비율에 대한 상자그림(boxplots) 그래프

4.2. 영어 문장의 초점 발화 검사

한국인 영어 학습자가 발화한 실험 문장의 초점 위치에 대한 운율적 실현을 원어민의 발화와 대조 분석하기 위해, 원어민과 한국인 실험 참가자의 발화를 녹음한 후 음향음성 분석을 하였다. 음향음성 분석에 있어서 피실험자가 각 문장의 어떤 요소에 초점 강세를 실현하고 있는지를 측정하기 위해, 발화된 각 문장에서 피치액센트가 가장 낮게 실현된 문장 성분 (주어, 목적어, 동사)과 각 담화 문맥 문장의 목표 초점 위치에 있는 문장성분(주어, 동사, 목적어)에서 가장 높게 실현된 피치액센트의 기본 주파수(Fundamental frequency)의 차이 값(FO range)을 측정하였다.

FO 값 차이(FO range) 회귀분석에서는, 각 문장의 초점 위치의 단어(주어, 목적어, 동사)의 FO 값을 종속변수로, 각 문장의 평균 FO 값을 문장 통제변수로 정하였다. 원어민 그룹을 기준치로 하여 문장의 평균 FO 값과 각 초점어의 FO 값의 차이(FO range), 담화 맥락(SuNF, VPBF, SBF), 언어그룹(한국어, 영어)을 고정변수로 회귀분석을 실행했다. 발화 회귀분석 결과는 아래 표 4에 다음과 같이 제시됐다.

표 4. 원어민을 기준치와 F0 차이 값 고정변수에 대한 회귀분석 모수 값 결과

	Estimate	95% CI-lower	95% CI-upper	p
SuNF baseline				
English	0.4514	-15.345	12.165	0.8955
Korean	-30.1541	-45.635	-16.544	<0.001
F0 Range	1.1987	1.023	0.234	<0.001
Korean: SBF	27.1234	8.9874	45.852	<0.005
Korean: VPBF	20.2912	2.294	40.011	<0.05
VPBF: Baseline				
English	6.411	-10.220	18.988	0.5274
Korean	-23.2415	-40.5241	-8.456	<0.05
F0 Range	1.189	1.096	1.347	<0.001
Korean: SuNF	7.041	-10.145	23.897	0.3765
Korean: SBF	-20.310	-38.241	-1.301	<0.05
SBF Baseline				
English	4.562	-11.214	18.012	0.6782
Korean	-40.715	-48.125	-9.167	<0.001
F0 range	1.212	1.102	1.414	<0.001
Korean: SuNF	-28.410	-45.768	-8.421	<0.01
Korean: VPBF	-7.045	-22.769	9.378	0.2844

한국인 피실험자의 SuNF, VPBF, SBF 발화를 원어민의 발화와 비교분석에서, 한국인 피실험자는 원어민의 발화와 모두 유의미한 차이를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한국인 피실험자가 초점의 운율적 실현을 대체적으로 원어민과 다르게 발화하고 있음을 의미한다. 그러나 SuNF 발화를 기준치로 회귀분석한 결과, 한국인 피실험자의 SuNF 발화의 초점 실현은 SBF, VPBF 발화 문장과 모두 다르게 초점 위치를 실현하고 있으며, 원어민의 SuNF 발화와 유의미한 차이를 보이지 않고 있다. 이는 한국인 피실험자가 주어 위치의 초점 위치를 올바르게 실현하는 것으로 해석된다. 또한 VPBF 발화를 기준치로 회귀분석한 결과, 한국인 피실험자는 SuNF 발화에서의 초점 실현과 유의미한 차이를 보이지 않고 SBF 발화와는 유의미한 차이를 보이고 있다. 한국인 피실험자의 경우 VPBF 문장과 SuNF 문장의 동사에 F0 하강이 거의 실현되지 않았는데, 이는 주어의 피치 액센트가 F0 하강 없이 동사에 그대로 연결되어 결과적으로 두 문장의 초점 위치가 운율적으로 다르게 실현되지 않았다. SBF 발화를 기준치로 회귀분석한 결과,

한국인 피실험자의 SBF 발화에서의 초점 실현은 SuNF 발화와 유의미한 차이를 보이나, VPBF 발화와는 유의미한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한국인 피실험자가 SBF와 VPBF 문장을 발화할 때 두 문장 모두 목적어에 피치 액센트를 주지 않기 때문으로 해석된다. 한국인 피실험자의 SuNF, BPBF, SBF의 초점 실현을 원어민의 발화와 대조하였을 때에도 SBF 문장에서 동사에 실현된 F0 값이 가장 두드러지게 차이가 나는 것을 아래 그림 2에서처럼 알 수 있다. 세 담화 문장 모두에서 한국인 피실험자의 경우 동사의 위치에 원어민보다 더 큰 F0 차이 값이 나타났다. 이는 세 가지 다른 초점 발화 문장에서 각각 다른 초점 위치에도 불구하고 한국인 피실험자의 경우 주어와 동사 모두에 피치 액센트를 실현하는 반면 목적어에는 피치 액센트를 실현하지 않기 때문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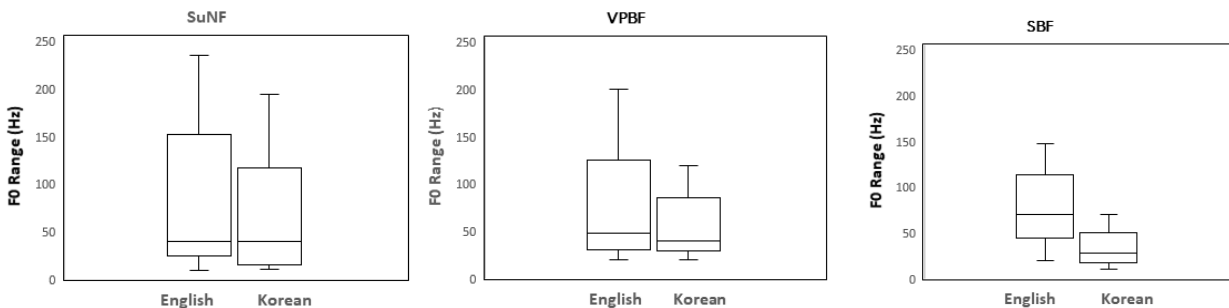


그림 2. 각 언어그룹(Korean, English)의 각 문맥 별 초점어의 F0 차이 값을 보여주는 상자그림(boxplots) 그래프

4.3 초점 인지와 발화 상관관계

이 실험에서는 한국인 피실험자의 한국어 문장과 영어 문장의 초점 인지 실험 결과의 상관관계를 분석하였다. 또한 초점의 운율적 실현에 있어 실제 발화와 인지와는 어떠한 상관관계가 있는지를 분석하여 한국인 피실험자의 초점 인지가 실제로 발화에는 어떻게 실현되는지를 살펴보았다.

우선 한국인 피실험자의 한국어와 영어 문장의 초점 인지결과를 비모수 스피어만 상관(Non-parametric Spearman correlations)을 사용하여 대조 분석하였다. 상관관계 분석 결과는 한국인 피실험자의 한국어 문장의 초점 위치와 의미관계의 일치성과 영어 문장의 초점 위치와 의미관계의 일치성 사이에 다소 높은 상

관관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p < 0.05$, $S = 2507$). 한국어 문장과 영어 문장 모두에서 한국인 피실험자의 SuNF 문맥의 의미 일치성은 상당히 높으나, VPBF와 SBF와 같은 넓은 초점의 일치성에 면에서는 상대적으로 부정확하거나 일관적이지 않은 정확도를 보이는 점을 반영한다. 반면 영어원어민 참가자의 영어 문장의 초점 위치와 의미의 일치성과 한국인 피실험자의 영어 문장 초점의 의미 일치성을 대조하는 분석에서는 상관관계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p = 0.1320$, $S = 9251$). 이는 한국인 피실험자가 영어 문장의 초점 위치와 의미와의 관계를 이해하는데 있어 원어민처럼 정확하게 인지하지 못하고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한국인 피실험자는 한국어 문장에서처럼 좁은 초점과 넓은 초점의 의미관계를 이해하는데 불규칙적인 결과를 보인 것과 달리, 원어민은 다른 담화 상황의 모든 문장의 초점위치와 의미관계를 상당히 정확히 인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그림 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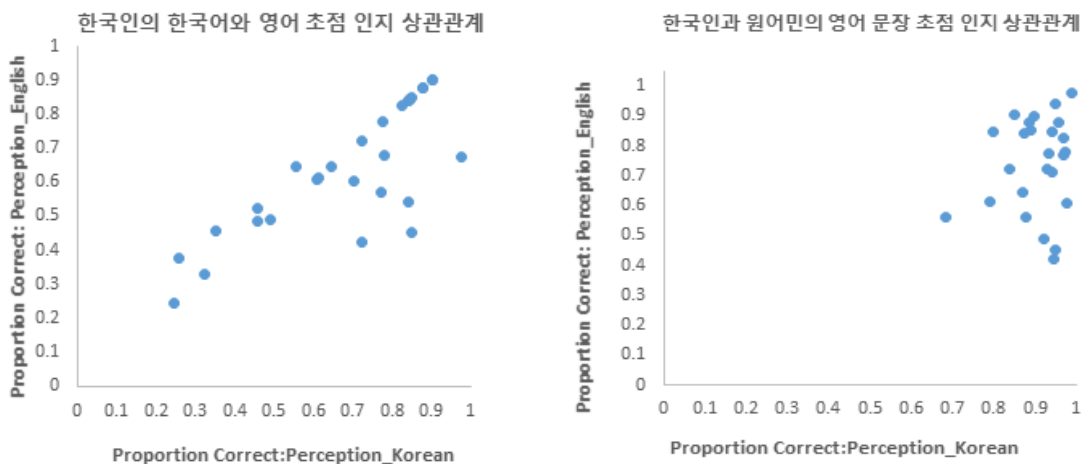


그림 3. 한국인 피실험자의 한국어와 영어 문장의 초점 인지결과 상관관계 산포도

상관관계 분석을 통해 그 인과관계를 설명할 수는 없으나, 이는 한국어의 초점 실현의 운율적 실현이 피치 액센트만으로 실현되지 않고 특히 한국어 문장의 넓은 초점의 의미관계를 파악하는데 영어와 다른 통사적 규칙과 운율적 자질을 사용하기 때문일 수도 있다. 영어의 운율구조에서 한 정보구문(Information phrase)는 강세받은 음절, 피치 액센트(pitch accent), 구 액센트(phrasal accent)로 구성되는 반면, 한국어의 경우 액센트구(accentual phrase)의 구경계 성조(phrasal tone)와 억양구(Intonational phrase)의 경계성조(boundary tone)

로 구성된다(Oh 2008, Jun and Oh 2000). 따라서 영어의 경우에 피치 액센트의 유형, 위치, 경계성조가 발화의 의미에 영향을 미치는 것에 반해, 한국어의 액센트구 및 정부구문의 위치, 경계성조의 유형이 발화의 의미에 영향을 미치게 된다. 또한 한국어의 경우 초점을 포함한 발화에서 초점 받은 단어는 액센트 왼쪽 끝에 놓이는 반면, 영어의 경우 초점이 정보구문 내의 마지막 피치 액센트의 위치에 영향을 미친다. 본 실험의 한국인 실험 참여자는 영어의 좁은 초점과 넓은 초점의 위치와 의미관계를 파악하는데 차별적으로 적용하지 못하고 모두 액센트의 왼쪽 끝에 실현되는 운율적 자질만을 인지하고 발화하는 것으로 판단된다. 이러한 한국어 초점의 운율적 실현이 영어 문장의 담화상황과 관계없이 전이되어 한국인 피실험자들은 초점 위치의 단어에 상승된 F0 만으로 영어 문장의 넓은 초점의 위치와 의미관계를 파악하는데 어려움을 겪는 것으로 추론할 수 있다.

이번에는 한국인 피실험자의 영어 초점 인지 결과와 발화 결과가 어떠한 상관관계가 있는지 분석하였다. 스피어만 상관관계(Spearman correlations)를 사용하여 각각의 담화 문장(SuNF, VPBF, SBF)에서 한국인 피실험자가 각 문장의 초점 위치와 의미를 이해하는 능력과 초점의 운율적 실현 사이 어떠한 상관관계가 있는지 살펴보았다. 분석 결과 SuNF의 경우 한국인 피실험자는 인지와 발화 사이에 다소 높은 상관관계가 있으나, VPBF와 SBF의 경우 상관관계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SuNF: $p < 0.05$, $S = 2144$; VPBF: $p = 0.8184$, $S = 12459$; SBF: $p = 0.8533$, $S = 15472$). 이 같은 결과는 아래 그림 4의 산포도에 제시됐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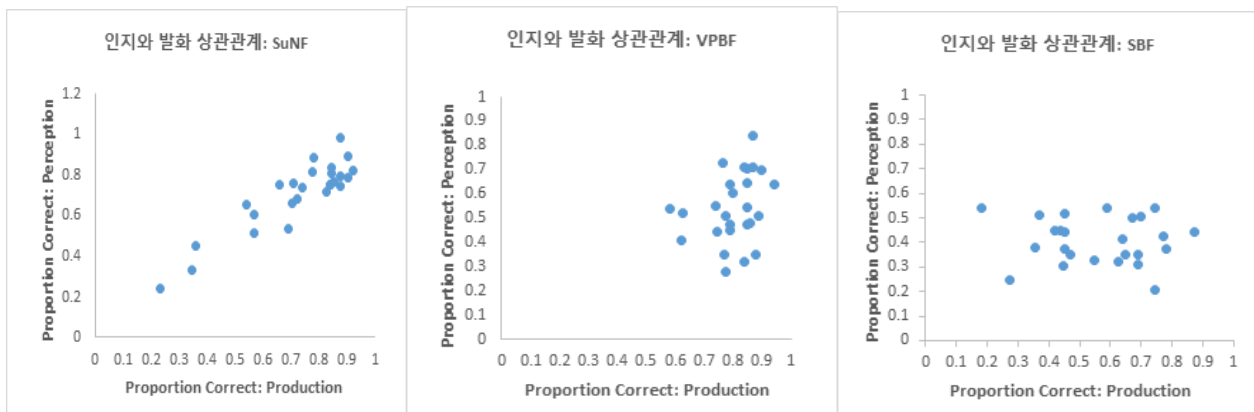


그림 4. 한국인 피실험자의 각 담화별 영어 문장 초점 인지와 발화의 상관관계 산포도

V. 토의 및 결론

본 연구의 목적은 한국인 영어학습자의 영어 운율적 초점 습득에 있어, 모국어의 어떠한 영역이 영어의 초점 인지와 발화에 영향을 미치는지를 살펴보는 것이다. 이를 위해 본 연구는 한국인 영어 학습자가 모국어와 영어의 운율적 초점에 대한 인지와 발화를 각각 분석하고 그 상관관계를 살펴보았다.

본 연구의 실험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로, 한국인 피실험자는 한국어 문장과 영어 문장에 대한 초점 위치와 의미관계와의 일치성 면에서 상관관계가 있는 것으로 분석됐다. 한국어 피실험자는 한국어와 영어 모두 좁은 초점의 위치와 의미관계는 상당히 정확히 인지하나 넓은 초점의 경우 그렇지 않은 것으로 분석됐다. 둘째로, 한국인 피실험자의 영어 초점 문장의 인지와 발화를 원어민 참가자의 인지와 발화와 대조하여 분석한 실험에서 한국인 피실험자의 영어 문장 인지와 발화 양상이 유의미하게 다른 것으로 나타났는데, 원어민과 대조적으로 한국인 피실험자는 넓은 초점 문장의 초점 위치와 의미관계를 상대적으로 부정확하게 이해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원어민과의 발화 비교에서도 영어 문장의 목적어가 초점어일 때 동사에서 F0 하강이 나타나고 목적어에서 원어민과 비교하여 상당히 낮은 F0를 실현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원어민의 경우 넓은 초점 문장의 발화에서 목적어 이전에 이미 상당한 F0 상승이 있어 좁은 초점과 넓은 초점의 운율적 대조가 분명히 나타났다. 셋째로, 한국인 피실험자의 영어 초점 인지와 발화의 상관관계를 살피는 분석에서는, 좁은 초점 문장의 경우 인지와 발화간의 상관관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나 넓은 초점 문장의 경우 뚜렷한 상관관계가 보이지 않았다. 이러한 결과는 본 연구에 참여한 한국인 피실험자가 한국어와 영어의 넓은 초점을 인지하는데 있어 F0만으로 초점 위치와 의미와의 관계를 파악하는데 어려움을 겪는 것으로 분석된다. 영어 초점의 운율적 실현에서도 역시 초점어 전에 F0 상승이 나타나지 않고 초점어에 실현된 피치 액센트의 F0 range도 원어민과 비교하여 상당히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한국어의 넓은 초점의 운율적 실현에 대한 인지와 발화 방식이 영어 넓은 초점의 운율적 실현에 그대로 적용되는 것으로 해석될 수 있다.

이 같은 연구결과는 모국어가 L2 습득에 많은 영향을 미친다는 증거로 보인다.

다른 모국어 사용자가 영어를 L2로 습득하는 학습자의 초점 실현 연구에서도 모국어의 영향은 제시됐다. 예를 들어 L1에서의 정보구조의 인지적 패턴이 L2의 정보구조를 파악하는데 사용된다는 증거가 Akker & Cutler (2003)의 연구에서 제시된 바 있다. 이 연구에 따르면 언어 간 초점을 실현하는 방식이 다름에도 불구하고 L1에서 사용하는 초점표시 전략이 L2에서 그대로 사용되는 경우가 관찰됐으며 이러한 L2에 대한 L1 전이는 효과적인 의미전달을 어렵게 하고 있는 것으로 논의됐다. 한국어의 경우 초점을 포함한 발화에서 초점 받은 단어는 액센트 왼쪽 끝에 놓이는 반면, 영어의 경우 초점이 정보구문 내의 마지막 피치 액센트의 위치에 영향을 미친다. 본 실험의 한국인 실험 참여자는 영어의 좁은 초점과 넓은 초점의 위치와 의미관계를 파악하는데 차별적으로 적용하지 못하고 모두 액센트의 왼쪽 끝에 실현되는 운율적 자질만을 인지하고 발화하는 것으로 판단된다. 이러한 한국어 초점의 운율적 실현이 영어 문장의 담화상황과 관계없이 전이되어 한국인 피실험자들은 초점 위치의 단어에 상승된 F0 만으로 영어 문장의 넓은 초점의 위치와 의미관계를 파악하는데 어려움을 겪는 것으로 추론할 수 있다.

본 연구 결과는 한국인 영어학습자에게 영어의 초점을 지도하는데 있어 다음과 같은 시사점을 제시한다. 첫째로 학생들에게 한국어와 영어의 중립 초점 문장에서의 운율적 실현을 각각 비교하여 그 차이점을 인지할 수 있도록 돕고, 이 후 영어의 좁은 초점 문장과 넓은 초점 문장의 초점어의 위치가 중립 초점 문장의 운율적 실현과 어떻게 다른지를 인지하고 발화할 수 있도록 지도하는 것이 도움이 되리라 생각된다. 예를 들어 중립문장의 초점어를 독립적으로 제시하여 단어강세의 운율적 실현을 연습하고, 이에 이어 초점어가 포함된 구강세, 문장강세로 차근차근 확장해 가며 중립문장에서의 초점의 위치와 실현을 돕는다. 또한 중립문장과 비교하여 다른 담화상황에서는 다른 위치에 옮겨진 초점어의 위치를 인지하고 실현할 수 있도록 연습할 수 있도록 할 수 있다. 이때 영어의 초점어를 발화하는데 있어 필요한 운율 자질 중 F0를 상승시키는 음성 훈련을 하는데 많은 노력을 쏟아야 하며 학생들의 발화를 녹음하여 학생 스스로 초점어의 운율적 실현이 제대로 실현되고 있는지 확인하는 과정을 통해 지속적인 인지 훈련을 가능케 할 수 있다. 이는 한국인 영어학습자들에게 두드러지게 나타나는 단조로운 기본주파수는 전달하고자 하는 의미의 이해도를 크게 저하시키며, 외국어 억양

이 강하거나 원어민이 이해하기 어렵다고 판단되기 쉽기 때문이다. 따라서 초점어 이전과 이후에는 액센트를 해지하거나 F0를 대폭 하강시킬 수 있도록 청취나 발음 훈련을 하도록 하여 문장 내에서 초점어와 비초점어를 효과적으로 대조 혹은 강조할 수 있도록 지도할 필요가 있다.

이러한 발음 교육을 통해 한국인 영어학습자가 다른 의미적 논항구조를 가진 문장에 적절한 초점의 운율적 실현을 인지하고 발화하여 구두언어를 더욱 빠르게 처리할 수 있으며, 부정확한 액센트로 인해 자연스럽게 못한 운율을 낳거나 화자의 의도를 제대로 전달하지 못하는 문제점을 극복하는데 도움이 될 것이다.

Works Cited

- Akker, E., and Cutler, A. (2003). Prosodic cues to semantic structure in native and nonnative listening. *Bilingualism: Language and Cognition*, 6(2), 81-96.
- Baker, R. E. (2010). *The acquisition of English focus marking by non-native speakers* (Doctoral dissertation, Northwestern University).
- Best, C. T., McRoberts, G. W., and Goodell, E. (2001). Discrimination of non-native consonant contrasts varying in perceptual assimilation to the listener's native phonological system. *The Journal of the Acoustical Society of America*, 109(2), 775-794.
- Boersma, P. and Weenink, D. (2014). Praat: doing phonetics by computer (version 5.3.82).
- Bolinger, D. L. (1972). Accent is predictable (if you're a mind-reader). *Language*, 48(3), 633-644.
- Bolinger, D. L. (1989). *Intonation and its uses: Melody in grammar and discourse*. Stanford university press.
- Choi, H-W. (1997). Topic and focus in Korean: The information partition by phrase structure and morphology. *Japanese/Korean Linguistics*, 6, 545-561.
- Chomsky, Noam, and Morris Halle. (1968). *The Sound Pattern of English*. New york: Harper & Row.
- Cruttenden, A. (1998). *Intonation*. Cambridge University Press.
- Flege, J. E. (1995). Second language speech learning: Theory, findings, and problems. In W. Strange (Ed.), *Speech perception and language experience: Issues in cross-language research*, 233-277. Baltimore: York Press.
- Gussenhoven, C. (1983). Focus, mode and the nucleus. *Journal of Linguistics*. 19:377-417.
- Gussenhoven, C. (1999). *On the limits of focus projection in English*. *Focus: Linguistic*,

- Cognitive, and Computational Perspectives*, edited by Peter Bosch & Rob van der Sandt, 43-55. Cambridge: Cambridge University Press.
- Gussenhoven, C. (2002) *Types of focus in English. Topic and Focus: Intonation and Meaning. Theoretical and Crosslinguistic Perspectives*, edited by D. Büring, M. Gordon, & C. Lee. Dordrecht: Kluwer.
- Halliday, M. (1967). *Intonation and Grammar in British English*. The Hague: Mouton.
- Jeon, Y., Oh, S. and Kim, K. (2004). The Production and Perception of Focus in English Yes-No Questions, *Speech Sciences*, 11(3), 111-128
- Jun, S. A., & Oh, M. (2000). Acquisition of second language intonation. In *Sixth International Conference on Spoken Language Processing*.
- Jun, S. A., and Oh, M. (2000). Acquisition of second language intonation. In *Interspeech*, 73-76.
- Kang, S-H and Ahn, H-K. (2012). Acoustic variation in Korean vowels spoken by beginning and advanced native English learners of Korean. *The Linguistic Association of Korea Journal*. 19. 47-65.
- Kim, H-K. (2007). A Study on the Efficacy of Teaching English Discourse Intonation: Blended Learning, *Korean Journal of Speech Sciences*. 14(3), 31-46.
- Kim, K. (2004). A comparative study between English and Korean speakers on the acoustic characteristics of focus realization in English focus sentences. *Speech Sciences*, 11(2), 89-104.
- Kim, M., Shin, D., Choe, J. and Kim, K. (2000). Pitch patterns of interrogative sentences in relation to the focus, *Speech Sciences*, 7(4), 203-217.
- Lee, J. (2004). Tonal contours of English stress clash: Native speakers vs. Korean speakers of English, *English Language and Literature*, 50(5), 1209-1230.
- Lee, J. (2005). The problems with Korean speakers' L* production in English and their implications for teaching English intonation, *Studies in Phonetics, Phonology and Morphology*, 11(2), 353-366
- Munro, M. J., and Derwing, T. M. (2001). Modeling perceptions of the accentedness and comprehensibility of L2 speech: The role of speaking rate. *Studies in second language acquisition*, 451-468.
- Oh, M. (2008). Prosody and Information Structure: Phonetic realizations of Focus and Topic in Korean. *The Korean Journal of Speech Sciences*, 15(2), 7-19.
- Schmerling, S. F. (1976). *Aspects of English sentence stress*. University of Texas Press.
- Yi, S.-P. (2011). An Analysis of H* Production by Korean Learners of English according to the Focus of English Sentences in Comparison with Native Speakers of English and Its Pedagogical Implications, *Phonetics and Speech Sciences*, 3(3), 57-62.

정윤희 (전남대학교/강사)

주소: (61038) 광주 광역시 북구 일곡택지로 50, 대우아파트 101동 2003호

이메일: yunheeverse@naver.com

논문접수일: 2020. 06. 30 / 심사완료일 2020. 08. 12 / 게재확정일: 2020. 08. 12